+

광주 산업 기반 인재 양성 프로젝트 본격 가동

市・전남대・조선대, 글로컬대학 비전 선포

市, 5년간 4천700억원 투입 혁신모델 완성 전남대 AI 인재 2만명·창업 200개사 육성 조선대·조선간호대, 글로벌인재 5천명 양성

광주지역 산업을 기반으로 한 인재 양성 프로 젝트가 본격 가동된다.

광주시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조선간호대학교와 함께 '2025 광주 특성화 지방대학(글로컬대학)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특성화 지방대학(글로컬대학) 프로젝트'는 세계적 수준의 지방대학(Global+Local, 글로 컬)을 지정해 지역과 대학 동반성장을 목표로 인재가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는 지·산·학·연생태계 구축사업이다.

지난 9월 전남대와 조선대-조선간호대(통합) 가 교육부 주관 '글로컬대학 프로젝트'에 최종 선정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주시와 올해 공모에 선정된 전남대, 조선대-조선간호대학이 손잡고 '인공지능+웰에이징 인재! 광주의 내일을 열다'를 주제로 공동 비전을 선언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광주 특성화 지방대학(글로컬대학) 비전 선포식' 참석자들과 비전 선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선포식에는 강기정 시장, 이정선 시교육감, 이근배 전남대학교 총장,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 박명희 조선간호대학교 총장, 조순계 조선이공대학교 총장, 기업인, 학생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공감토크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이근배 총장, 김춘성 총장이 함께 무대에 올라 학생·교 수·교직원·시민들의 현장 질문에 답변을 이어 갔다.

비전 선언문에는 ▲인공지능과 웰에이징 특화인재 양성 미래 선도 ▲지역·대학·산업 상생발전 혁신 생태계 구축 ▲글로벌 허브 중심지 도약 ▲모두가 성장하는 지역혁신 새로운 표준모델 구축 등이 담겼다.

강기정 시장은 "어떤 기업도 '광주에 인재가 없어서 못간다'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행정-대 학-기업이 손을 맞잡고 광주를 인재 양성의 요 람으로 완성하겠다"며 "사람을 키우는 것은 지 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고, 정주하 며 산업을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 발 전의 새 미래를 활짝 열겠다"고 밝혔다.

이근배 전남대학교 총장은 "전남대는 AI+X 융합교육과 글로벌 학습 환경을 확대하고 광주 시의 'AI 수도' 비전과 연계해 지역의 AI 기반 산업 전환을 선도하겠다"며 "개방형 혁신 생태 계를 구축해 글로벌 인재 양성과 지역 미래 설계 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은 "전 생애 웰에이징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길을 넓히며 글로벌 무 대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 록 국제 교육·연구 협력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대는 '인간중심 AI 융합 인재양성 교육·연구 혁신대학'을 비전으로 AI융합교육센터, AI융합연구원, 글로벌 공동연구소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AI융합 인재 2만명 양성, 창업기업 200개 육성, 유학생 5천명 유치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선대는 '웰에이징 아시아(Asia) 넘버원(N 0.1) 대학'을 비전으로, 웰에이징밸리 구축, 웰에이징 기술융합원, 글로벌 자회사 설립 등 웰에이징 특화인재 1만명 양성, 기업 유치·창업기업 육성 200개, 글로벌 인재양성 5천명 등을 목표로 추진한다.

광주시는 5년간 4천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주형 교육, 좋은 일자리, 청년이 머무는 광주 를 만들고 '대학·지자체 동반 혁신모델'을 완성 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 혁신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기수희·박선옥기자

道-가족부, 성평등·청소년 지원정책 협력 논의

원민경 장관에 농어촌·다문화 정책 건의 청소년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법률 요청

전남도는 24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전남도를 방문, 성평등·가족정책 협력 강화와 청소년 상담·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원민경 장관과 도청에서 면담을 갖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성평등·가족정책 협력 모델 구축을 논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면담에서 ▲농어촌 여성의 취업 접근성 부족 ▲고령화로 인한 조손·한부모가정 증가 ▲다문화가정 비중 확대 등 전남의 특수성과 도민의 정책 요구를 설명했다.

또한 전남도가 추진 중인 ▲일·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 문화 확산 ▲여성 경력단절예방 지원 ▲전남 출생기본수당 등 전남형 돌봄체계 구축 등 주요 성과를 공유한 뒤 지역 성평등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광역가족센터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 국가사업 전환 등 도민 삶의 변화를 이끌 주요 사업을 건의하다.

김영록 지사는 "성평등을 청년층 인구 유입과 지역 발전의 선결 조건이자 미래 경쟁력의 핵심 가치로 보고 있다"며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가족 돌봄 안전망 강화, 폭력 예방 등 도민이체감하는 성평등 정책 수준을 높이고 도민 삶의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와의 면담에 이어 원민경 장관은 전남 도청소년미래재단을 방문, 청소년상담복지센 터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청소년 단체의 다양 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원 장관은 전남도와 청소년미래재단, 관련 협회의 주요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보고받은 뒤 청소년상담사·지도사 등 현장 종사

자를 격려하고 감사의 뜻도 전했다.

전남도는 간담회에서 청소년기관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처우와 관련, 청소년방과후아 카데미, 동반자, 성문화센터 등 4개 사업 종사자 의 호봉제 적용을 건의했다. 고호봉자·경력자 의 실질적 호봉제 인정과 국비 지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법률과 같은 청소년 기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법률 제정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원민경 장관은 "청소년기관과 종 사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 공감하며 현장의 목 소리를 적극 검토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재정기자



Al가 광주매일신문을 똑똑하게 읽어줍니다.

'사회적 참사' 기억 담은 웹툰·삽화 전시회

〈광주시 제공〉

내달 1일까지 광주시청 열린문화공간

광주시가 사회적 참사를 함께 기억하고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되새기는 전시회 '고통의 곁, 곁의 고통'을 오는 12월1일까지 시청 열린문화 공간에서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광주 학동 참사, 세월호 참사 등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의 증언을 재구성한 웹툰 ·삽화 11점을 소개한다.

4·16재단 부설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의 '참사와 서사' 수업을 통해 제작된 작품들이다.

주요 작품은 ▲광주 학동 참사 '빈 손' ▲이태 원 참사 '애도의 조건'·'한 마디' ▲세월호 참사 '괜찮은 이의 이야기' ▲오송 침수 참사 '걷기 위해서' ▲대구지하철 화재 '전하고 싶은 마음' ▲ 가습기살균제 참사 '당연한 것' 등이다.

전시회는 지난 10월29일 국회의원회관을 시작으로 경기도, 별들의 집, 수원시 평생학습관등을 순회하며 진행 중이다. 전시 작품은 '우리함께' 누리집 (https://1661-2014.org/2025exhibit

ion)에서도관람할수있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참사는 우리 사회가함께 기억하고 성찰해야할 아픔"이라며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촘촘히 살펴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수희기자

의사공백보건소·의료원'한의사'활용검토

정부가 지역 공공의료 현장의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의사' 인력 의 참여확대를 적극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서 제기된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라 한의사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공 공의료기관의 한의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한의 공공보건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공공보건 의료 분야에서 한의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시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u>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u>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살탕 062)222-1095, 1096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 의 650-2022

대명OA

취/급/품/목

-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져 및 잉크젯 프린터 저사스므프
- □ 전산소모품 □ 레이져(토너/드럼)
- 및 데이저(포니/ 및 카트리지
- ᄬ 가드디시 ▫ 각종 잉크류
- ® 각종 잉크! ◎ 복사용지
- 팩스용지■ 판매
- ▫임 대 ▫A/S

T.375-5880

[감정가 이하]

○ 감정가6억2,000 == 급매4억1,000 임동5거리 대로변8층135평(바로입주가능) [시세반값 급매물]



- 백운광장 대로변코너 상업지289평(분할가능)평당1,600
- 법원앞 대로변코너 전철역입구예정지 대지283평 평당1,200

급히 구합니다

토지,건물 투자조건맞으면 바로 계약됩니다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쌍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 062)719-3380, 010-8678-4638